

# 글쓰기 지침서들 백가쟁명의 열전 벌인다

## 교육과정 조정 따라 수십종 범람... '기술'과 '요령'만 가르치는 책도 적잖아

글쓰기과외가 성행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용 글쓰기지침서가 벌써 30여 종이나 출판된 것을 비롯해서 고교생이나 성인용 글쓰기지침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 이외에도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많은 글쓰기지침서 중에서 정작 필요한 책을 고르는 쉽지 않다. 책 선별의 첫째 조건은 “어느것이 올바른 글쓰기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글이란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글쓰기를 본다면, 글쓰기지침서가 자칫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대공원 후문 근처의 한 연립주택. 상 위엔 조그마한 국어사전이 놓여 있고, 원고지를 대신해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노트 위로 세 어린이의 손놀림이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어린이들은 우정화씨(23)의 지도로 글쓰기과외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글쓰기과외는 거의 대화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들면 교사가 유리창 밖의 풍경에 대해 묻고, 세 명의 어린이들은 열심히 보이는 것을 말한다. 세 어린이는 각각 열매, 나팔꽃 덩굴, 선인장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지도교사 우정화씨는 갑자기 “선인장이 원하는 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날의 글쓰기 주제는 바로 ‘선인장이 원하는 것’이 되었다.

이 연립주택의 세 어린이 뿐만 아니라 글쓰기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 원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도 글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필요성은 자발적 이라기보다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옳다. 하지만 글쓰기 자체가 창조적 사고를 요하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여러 학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 “글쓰기는 말을 글자로 바꾸는 것”

글쓰기과외의 여파는 출판계에도 미치고 있는데, 어린이용 글쓰기지침서가 벌써 30여 종이나 출판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 관계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글쓰기에 대한 마땅한 교재가 없다고 말한다. 우정화씨의 말이다.

“어린이들의 경우 생각하는 방향이 어른들과 많이 다릅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어른들의 입장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글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비쳐지고 말지요.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글쓰기지침서들은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른들의 시각으로 씌어진 것이어서 저는 그 교재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의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이오덕씨의 책은 양적으로도 많을 뿐더러 질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나는 글쓰기」 등 지식산업을 통해 펴낸 ‘이오덕 글쓰기교실’ 시리즈 다섯 권은 어린이들



글쓰기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

의 글을 게재하고 그 글에 대한 평을 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서 느낀대로」(심경석, 교학사) 「새로운 글짓기 교실」(이창건, 예림당), 「어린이 글짓기 동산」(고재갑, 화술), 「나의 생각 글쓰기」(성정일, 시서례) 「친구에게 말하듯 써 보세요」(박성애, 동아출판사) 등이 있는데, 그 평은 저자에 따라 상당한 질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오덕씨가 도서출판 보리에서 펴낸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는 글쓰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우선 대학을 나오고도 편지 한 장 제대로 쓸수 없는 사람을 양성하는 현행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지금까지의 글쓰기 지도가 어린이들의 표현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오덕씨는 꾸며 쓰게 하는 글짓기 지도, 책에 나온 말을 인용하도록 하는 지도, 주어진 글감을 쓰게 하는 지도, 어린이의 생각을 낮게 보고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하는 지도, 순종하는 태도만을 지도하는 태도 등을 글쓰기 지도의 폐단으로 들고 있다. 결국 이오덕씨의 책은,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글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집약하고 있다.

이호철씨가 최근 내놓은 「살아있는 글쓰기」(보리)는 저자 자신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점과 어린이들의 글쓰기가 갖는 의미들을 나열하면서 글쓰기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호철씨가 말하는 바도 이오덕씨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글쓰기는 말을

글자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생활하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쓰면 된다는 것.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직접 해 본 시쓰기 개인지도 사례와 함께, 어린이의 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쓰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어린이용 글쓰기지침서가 대부분

「재미있고 신나는 글짓기 여행」(엄기원, 한국어린이교육연구원)은 내용이 알찬 글, 사건 중심의 글, 대화가 담긴 글, 생각이 알찬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글쓰기를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글쓰기를 이룬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교과진도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어서 학교수업을 복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밖에 각 학년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책으로는 「글짓기 징검다리」(차원재, 대교), 「나도 쓸 수 있어요」(이병희, 교학사) 「안녕하세요, 글짓기 선생님」(이은상, 바른사) 「글짓기 박사」(김인수, 흥인) 등이 있다.

김태하씨가 펴낸 「글짓기 완전학습장」 「기초 글짓기 연습장」(바른사)은 “글쓰기는 매우 쉬우며, 아주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꾸렀다”고 하면서 요소별로 글짓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글쓰기의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어린이가 보기에 알맞은 듯하다. 설명체의 문장을 묘사체로 바꾸는 등 그 내용이 초보자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

다.

어린이용 글쓰기지침서 중 특이한 책은 정태선씨의 「글놀이 글놀이」(씨와날). 이 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고 각자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림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꾸며진 문정화씨의 「지혜사다리」(과학과예술), 자신의 글을 다른 어린이들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꾸민 「글쓰기가 쉬워졌어요」(이재현, 한길사)등도 눈길을 끈다.

글쓰기 중에서 특정분야만을 다루고 있는 책도 있다. 「마음을 열어주는 일기쓰기」(류인성, 온누리), 「독서감상문 쓰기」(박경용, 태양사) 「올바른 독서 감상문 쓰기」(엄기원, 지경사), 「논설문 이렇게 쓰자」(이병희, 교학사) 등이 그런 경우인데, 특정분야의 글쓰기에 대한 취미를 먼저 갖자는 것이 이 책들의 요지이다.

### 글쓰기지침서가 갖고 있는 폐단도 있다

이처럼 많은 글쓰기지침서 중에서 정작 필요한 책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다. 얼마전까지 글쓰기를 지도했던 황범주씨는 “어느 것이 올바른 글쓰기인가라는 관점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면서 그 관점 하에 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 글쓰기지침서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책,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북돋울 수 있는 책, 이론중심의 책, 실기중심의 책 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물론 두번째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글쓰기지침서를 경우에 따라 골라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책 선택이 쉽지 않은 데에는 글쓰기지침서가 갖고 있는 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삶을 가꾸는 바른글쓰기 모임’에서 어린이들의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는 이은정씨는 “글이란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글쓰기지침서가 차칫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한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야 하고, 꽃은 방긋방긋 웃어야 하고, 자동차는 쉿쉿 달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린이의 글에서 ‘개미가 근질근질하게 많아요’라는 표현을 봤

는데, 말 그대로 생동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쓰기지침서가 학교교육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얽어매는 폐단도 없지 않습니다. 글쓰기지침서도 자유로운 사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써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용 글쓰기지침서와 함께 고교생이나 성인들을 위한 글쓰기지침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글쓰기지침서들은 전문 문필가의 ‘○○시쓰기’나 ‘○○소설쓰기’ 등의 창작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과 크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차이는 전문인과 일반인이 갖는 글쓰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전문인이 쓰는 글은 고도로 훈련된 감수성을 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통해 전달할 정도의 글쓰기면 족하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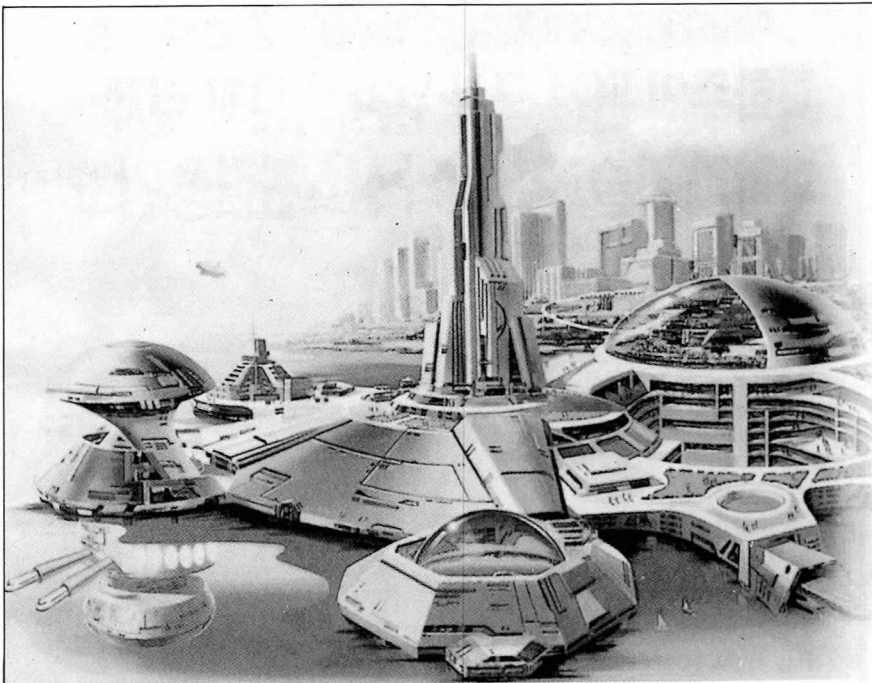
김해석씨의 「글쓰기 소프트」(새길), 이오덕씨의 「우리글 바로쓰기」와 「우리문장 쓰기」(한길사), 제해만씨의 「논술 소프트」(참샘), 고정욱씨의 「글힘돋움」(보성사) 등이 성인들의 글쓰기지침서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책들은 ‘글쓰기’라는 분야의 지침서 역할과 함께 교양서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있어 읽는 재미도 주고 있다.

### 읽기와 함께할 수 있는 글쓰기 강조돼야

어린이용, 고교생이나 성인용 글쓰기지침서의 경우 다양한 형식을 빌어 많은 중수가 출판되었지만 중학생들이 마땅하게 볼 글쓰기지침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올여름에 글쓰기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는 허병두씨(송문고 교사)는 “정작 참다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은 중학생 나이부터”라면서 “이들을 위한 글쓰기지침서도 빨리 출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위한 글쓰기 교육은 간단합니다. 3행시 짓기나, 원고지 한 장 쓰기, 3분간 글쓰기, 생각나는 낱말 나열하고 연결하기 등이 그 방법인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읽기와 함께할 수 있는 글쓰기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수 기자



# 동아출판사의 과학도서는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생명의 기원은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가?  
블랙홀과 우주의 비밀은?  
엔트로피—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현대 진화론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인문, 사회, 과학, 예술등의 범주를 넘어선 우주의 신비와 과학혁명에 관한 동아 과학교양도서—  
더 깊은 과학지식만이 더 넓은 세계관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의 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과학혁명을 통해 이루어짐을 역설한 토마스 쿤의 금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토마스 S. 쿤 저/김명자 역  
값 4,200원



**이기적인 유전자**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새로 쓰는 현대진화론  
리처드 도킨스 저/이용철 역  
값 4,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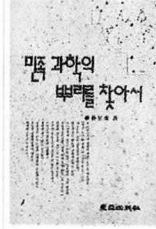
**하이테크 달걀**  
로봇, 유전자 지도, 생체공학, 퍼지이론, 하이테크 식품 등 상상속에서나 그럴 수 있었던 세계. 21세기 첨단기술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미리가본다  
현원복 저/값 5,500원



**우주의 비밀**  
우주의 기원, 천구의 운동, 핵 융합, 화학원소 등과 같은 어려운 과학 주제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나간 저서  
아직 아시모프 저  
편집부 역/값 4,000원



**엔트로피**  
자연계 최고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엔트로피 법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  
제레미 리프킨 저/김명자·김건 공역/값 4,500원



**민족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선조들의 과학전통과 단절되어 표류하고 있는 오늘의 과학기술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선조들의 과학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저서  
박성래 저/값 4,800원

**동아출판사**  
☎ 861-4818